

민족의 영광과 행복으로 빛나는 10년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불세출의 위인 (4)

민족대단결의 의지를 천명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길에 쌓아올린 정경애하는 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노라면 마음은 저절로 9년전 봄날의 김일성광장에로 달려간다.

잊지 못할 그 봄날에 온 겨레의 가슴마다에 하나의 강도, 하나의 민족, 하나의 퍼줄임을 깊이깊이 새겨주시던 정경애하는 그의 음성이 오늘도 울려오는것만 같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진정으로 나라의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며 조국통일의 역사적업무를 실천하기 위하여 책임적이고도 인내성있는 노력을 기울일것이다. ...

이것은 단순히 연설문에 씌여진 글이 아니었다. 온 민족의 단합과 나라의 통일을 위해 80여명의 년로하신 몸에도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기울인 아버지 수령님을 생각하시며 한자, 수령님의 필생의 념원을 만들어 이 땅에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펼쳐가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을 더듬어보시며 또 한자 써나간 정경애하는 그의 심중의 열렬한 로고였다.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다시 잇고 민족적단합을 기어 이룩하시려는 절세위인의 확고부동한 결심이었고 드물지 않는 의지의 선언이었다.

은 민족이 단합을 이룩할 때 대한 그의 열렬한 호소는 해마다 새해의 첫아침에 하신 신년사의 구절구절에도

어려하였다. 주체102(2013)년 1월 1일-조국통일의 주제는 전체 조선민족이며 온 민족이 힘을 합치면 이 세상 못해낼 일이 없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우선, 민족중시, 민족단합의 립장에 서서 전민족적위업인 조국통일의 대의에 모든것을 복종시키고 지향시켜나아가야 한다.

주체103(2014)년 1월 1일-우리는 민족을 중시하고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서 그가 누구든 과거를 불문하고 함께 나아갈것이며 북남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다. 주체104(2015)년 1월 1일-《조국해방 일흔둘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자!》, 이것이 전체 조선민족이 들고나갈 활 투쟁구호이다.

북과 남은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절제하면서 체제개혁을 추구하지 말며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따라 민족의 대단합, 대단결을 이룩하여 조국통일문제를 민족공동의 리

오늘날 우리 겨레는 누구보다 뜨거운 민족애, 조국애를 지니시고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민족대단결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있다.

한없이 넓은 도량과 뜨거운 동포애를 지니시고

이기에 맞게 순조롭게 풀어나가야 한다. 우리 민족의 뜻과 힘을 합친다면 못해낼 일이 없다.

주체105(2016)년 1월 1일-우리는 북남대화와 관계개선을 위해 앞으로도 적극 노력할것이며 진실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마주앉아 민족문제, 통일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 할것이다.

주체106(2017)년 1월 1일-은 민족이 뜻과 힘을 합쳐 거족적통일운동의 전성기를 열어나가야 한다.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은 민족공동의 위업인 조국통일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원칙에서 편대연합하고 단결하여야 하며 전민족적범위에서 통일운동을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주체107(2018)년 1월 1일-우리는 진정으로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원한다면 남조선의 집권여당은 물론 야당들, 각계각층 단체들과 개별적인사들을 포함하여 그

우익이 시대를 낳고 위인을 따라 력사는 전진한다. 조국통일을 앞당기는데서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해나가는것보다 더 중대한 문제는 없다고 하시며 지난 10년간 조국통일의 분수령을 이룰 력사의 순간순간을 마련하시던 정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기울인 심혈과 바치신 로고가 가슴뜨겁게 떠오른다.

돌이켜보면 정경애하는 원수님의 한없이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의해 대결과 전쟁의 위험이 항시적으로 놓여있던 이 땅에 민족적화해와 단합, 통일열기가 얼마나 뜨겁게 고조되었던가. 오늘날도 겨레는 민족사적 사변을 안아오시던 대결과 분렬의 상징인 판문점의 분리선을 성령 넘어서시던 정경애하는 원수님의 거룩하신 영상을 잊지 못하고있다.

민족우에 그 어떤 사상도, 주민주장도, 리해관계도 놓일 수 없으며 민족을 위한 사랑보다 더 큰것이 없다는것을 좌우명으로 새기고계시는 민족의 아버지의 그토록 넓은 도량과 포용력이 있었기에 한해동안에 세차례의 북남수뇌상봉이 마련되었고 민족공동의 선언인 판문점선언과 9월평양공동선언이 채택될수 있었다.

그 나날에 새겨진 정경애하는 그의 뜨거운 동포애의 정은 또 얼마나 만사사람의 심금을 울려주었는가. 나라일이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평양을 방문한 남측예술단의 공연도 무렵없이 보아주시고 공연이 끝난 후에는 주요배우들을 만나시며 일일이 악수도 나누시며 남측예술단의 이번 평양방문이 민족의 하나된 모습을 과시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하

시고 뜻깊은 기념사진까지 찍어주시던 정경애하는 원수님. 어찌 이뿐인가. 민족의 번영과 조국통일을 위해 조금이라도 이바지하려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이든 함포에 안아 사랑을 주고 값 높은 삶으로 빛내주시는분이 바로 정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민족의 화해와 협력, 통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장군님을 마음속으로 경모하여주시지 않던 남조선의 한 기업가가 장군님의 령전을 찾아왔을 때 정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의 두손을 잡아주시며 먼길을 와주셔서 감사하다고 뜨거운 정을 담아 말씀하시였으며 대국상의 그 빼져지고 분망하신 속에서도 그들일행의 체류에 사소한 불편도 있을세라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돌려주시었다.

그가 위대한 장군님의 서거 3돐에 즈음하여 삼가지의문을 올렸을 때에도 정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그 기 업가의 고결한 마음을 헤아리 시어 사의의 말씀을 보내시였으며 자자구구 동포애의 정이 넘치는 감사편지를 보내시었다. 언젠가는 세계평화연합 총재 문선명선생의 서거와 관련하여 그의 유가족들에게 조 전을 보내주신 정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그때 그 소식에 접한 남조선의 종교인들과 각계 인사들은 《문선명총재는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위원장님을 하늘같은 도량과 포용력을 지니고계시는분이시라고 했다. 사랑한 문선명총재를 내세워주시는 김정은원수님은 주석님과 위원장님의 도량과 포용력을 그대로 이어받으신분이시다.》라고 칭송해주시지 않았다.

진정 그가 통일애국의 마음을 간직한 민족의 한 성원이라면 누구나 손잡고 함께 통일의 길을 가시는 그의 위업적인 의리의 세계는 끝이 없다. 하기에 정경애하는 원수님의 바다보다 깊고 넓은 도량과 포용력에 감탄한 남조선인민들속에서는 《민족의 앞길에 대통령님이 있다.》, 《김정은원수님의 도량과 애국애족의 뜻은 하늘보다 높다.》, 《통일을 눈앞에 보 는것만 같다.》는 칭송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지난 9월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5차회의에서 정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북남관계단합의 원인들을 알면서도 의면하고 방치하였으며 아무런 변화도 보이지 않는 남조선당국의 태도를 지적 하시면서 북남관계가 회복되고 새로운 단계에 발전해나가는가 아니면 계속 지금과 같은 악화상태가 지속되는가 하는것은 남조선당국의 태도 여하에 달려있다는데 대하여 다시금 명백히 밝혀주시었다.

우리 겨레는 앞으로도 정경애하는 원수님을 민족대단결의 구성으로 높이 받들어모시고 내외반통일민족의 책동을 단호히 뒷받치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갈것이다.

본사기자 유금주



통일에 국의 고귀한 지침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는 주체61(1972)년 5월 3일 북과 남사이의 고위급 정치회담에 참가한 남조선측대표를 만나주시고 《조국통일의 3대원칙에 대하여》라는 역사적인 담화를 하시었다. 담화는 조국을 통일하는데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근본원칙을 밝힌 불멸의 지침, 전투적기치이다.

외세의존은 민족의 수치이다. 여기에는 외세의 존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해치는 반민족적행위라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우리 나라를 돌로 갈라놓는것도 외세이고 우리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도 다름아닌 외세이다. 외세의 간섭밑에서는 언제 가도 조국통일문제를 우리 민족의 념원과 리익에 맞게 해결할 수 없다. 외세의존은 민족의 수치!

조국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실현하여야 한다는것을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오늘날 새겨주고있다.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하려면 북과 남이 자기의 사상과 제도를 조율하여야 하며 서로 상대방을 적대시하는 정책을 쓰지 말아야 한다고 하시었다. 이 가르치심에는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이 민족적대단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는 뜻이 담겨있다. 민족의 대단결은 조국통일의 결정적담보이다.

북과 남에 존재하는 사상과 제도의 차이가 아무리 크다 해도 유구한 력사를 통하여 형성되고 공고발전된 우리 민족의 민족적공동성보다 더 클수는 없다. 동족을 적대시하는것은 결국 통일을 하지 않겠다는것이아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은 동족에 대한 적대시정책은 곧 동족대결정책이고 반동일정책이라는것을 새겨주고있다.

무엇이든 자위인가. 북과 남은 함께 손잡고 민족의 무궁한 번영과 미래를 창조해 나가야 할 동족이다. 만일 북과 남이 서로 싸운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것은 우리 민족밖에 없다. 동족을 《적》으로 삼고 동족을 겨냥한 무력중상이나 무장장비개발, 외세와 함께 벌리는 합동군사연습들은 《자위》의 허울 밑에 감춰지는 침략행위인 것이다. 그날의 뜻깊은 가르치심은 오늘날도 겨레에게 진정한 애국애족의 길은 어디에 있는가를 깨우쳐주고있다. 박명삼

이러한 정세속에서도 공화국은 시종일관 견지해온대로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인 투쟁을 벌려나갔다. 1990년 5월 31일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앙인민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정부원련합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를 취할데 대하여》가 상정되었다. 회의에서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하는데서 확고한 담보로 되는 중대한 대책적 문제들을 토의하고 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새로운 군축제안을 발표하였다. 또한 조국통일5개방침이 민족의 절박한 념원에 맞게 조국통일을 앞당겨 이룩할 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합의적 방안으로 된다는 데 대하여 일치하게 확인하고 그에 대한 전적인 지지를 표명하였다. 련합회의는 《조선반도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조국통일을 위한 평화적환경을 마련할데 대하여》(조선반도의 평화를 위한 군축제안)를 검토하고 만장일치로 채택하였다. 공화국의 새로운 군축제안

민족의 자주와 통일을 위한 역사적로정 조선반도의 평화적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은 공화국정부가 이미 1988년 11월에 내놓은 포괄적인 평화방안을 현실적조건에 맞게 더욱 구체화한것으로서 북남신뢰조성, 북남무력축감, 외국무력의 철수, 군축과 그 이후의 평화보장 등 4개 부문으로 되어있다. 북남신뢰조성에는 군사훈련과 군사연습의 제한,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의 평화화하여 우발적충돌과 그 확대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 등이 구체적으로 예정되어있다. 북남무력축감에는 북과 남의 무력을 3~4년안에 3단계로 10만명아래 수준으로 각각 낮출데 대한 문제, 군축장형을 호상 통보하고 검증 실시할데 대한 문제가 반영되어있다. 외국무력철수에서는 북과 남이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한 문제와 조선반도에서 일체 외국군대를 철

의 군축제안에 대해 《공정적으로 수용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군축회담도 조속히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990년 6월 4일에 진행된 공화국의 제 5차, 사회단체련합회의는 조국통일5개방침과 군축제안 등 공화국정부가 새롭게 내놓은 민족대단결과 조국통일을 위한 제안들을 전폭적으로 지지지원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대책들을 토의하였다. 련합회의에서는 남조선당국자들이 지체없이 군축을 실현하는 길로 나아가야 하며 미국은 남조선에서 자기의 군대와 핵무기를 하루빨리 철수시켜야 한다고 지적하고 남조선당국이 하루빨리 북과 남을 차단하는 물리적장벽인 콘크리트장벽을 허물어버릴것을 촉구하였다. 이렇듯 공화국정부가 제시한 평화와 통일을 위한 새로운 제안들은 조선반도에서 진행되는 모든 평화적환경을 마련하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고 련방제방식에 의한 통일국가를 창립하기 위한 한 겨레의 투쟁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본사기자 홍범식

애국운동의 나팔수들이 울린 신념의 메아리

권위있는 해외민족예술단체로 이름떨치고있는 총련 금강산가극단이 력사적인 조선로동당 제8차대회가 제시한 위대한 투쟁장령을 따라 용진하는 어머니조국과 투쟁의 승리를 같이하며 올해 순회공연활동을 활발히 전개하였다. 금강산가극단에서는 조국 땅에 나래치는 새로운 전진과 비약의 기상을 자신들의 예술창조활동에도 철저히 구현해나갈 열의를 안고 년초부터 창작창조활동을 활기있게 벌려왔다. 올해 4월 도교에서 대성황으로 진행된 금강산가극단의 특별공연 《북항기》는 동포사회에 민족의 향취와 정서, 약동하는 생기와 활력을 부

어준것으로 하여 동포들의 아낌없는 절찬을 받았다. 금강산가극단 창작가. 예술인들은 자본주의일본방에 주체성과 민족성이 흘러넘치는 화목하고 단합된 동포사회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이주노조진조금학교창립 30돐 기념공연의 주제를 《술》(소나무)로 정하였다. 눈속에 묻혀도 푸른빛 잃지 않는 소나무처럼 이역땅에 있어도 변함없이 경애하는 원수님만을 굳게 믿고 총성으로 따르며 대오의 일심단결과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정의 힘으로 온갖 어려움을 뚫고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나가는 전체 총련인군들과 동포들의 애국애족의 기상을 공연종목들마다에 담았다. 금강산가극단은 대령행진 엄병화산으로 공연활동에 많은 애로와 난관이 조성된데 따라 소련대공연활동 등도 진행하였다. 올해에 도교와 효고현, 가나와외포를 비롯한 일본각지에서 동포들의 대렬찬속에 열린 순회공연의 회수는 12개소에서 20여차례에 달한다. 민족악기의 고유한 음색, 흥취나고 건드러진 장단에 맞추어 금강산가극단 예술인들이 펼쳐놓은 아름다운 민족예술무대는 관중의 심금을 울려잡았다. 공연 때마다 무대와 객석은 환희의 열기로 하나가 되었고 무대막이 내려도 박수갈채가 그칠줄 몰랐다. 어려운 매일수록 우리의

